

| 특별 인터뷰 |

권 성 前 헌법재판관

대담 : 대중원 사무총장 권오운



권 성 (權 誠, 추밀37세, 75)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충청남도 연기에서 태어나서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사시 8회.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權 誠은 陽村 權 近仙생의 자손으로 재간공 권귀(齊簡公 權 圭)系族이며 37세손이다.

先考는 충남 천안 복일고등학교 초대교장과 충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을 역임한 權赫祖쪽 친이다.

1.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변호사님의 근황소개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제가 회장 일을 맡고 있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과 제가 고문직을 맡고 있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합에 가끔 참석하는 것 말고는 대외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뇌출혈의 후유증인 보형 장애의 극복을 위하여 산책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틈틈이 책도 읽고 있습니다. 보통은 역사에 관련된 소설책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2. 변호사님은 어려운 시기에 법관을 거쳐 헌법재판관으로서 봉직하셨는데 공무에 임하는데 있어 좌우명이나 철학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사건의 재판을 하면서는 그 사건의 배후에 감추어진 이런 저런 인생 살이의 사연을 이해하여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률규정의 문자적 의미를 따르는 데에만 치중하지 않고 그 규정의 배후에 내재되어 있는 條理(조리)를 합리적으로 밝혀 그 규정의 참된 이치를 따라보려고 나름대로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論語에 나오는 가르침을 자주 생각합니다.

3. 당시의 사회적 변혁기에 국가의 기준을 지키시는데 공헌하셨는데 특별히 기억하거나 어려움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전두환 전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관련된 12.12. 및 5.18. 반란 내란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판결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재판관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것이 기억에 크게 남습니다.

4. 원로 헌법연구가가 아닌 인간 권 성으로서 현재 주안점을 두는 연구분야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은퇴한 사람으로서 딱히 무슨 연구를 한다고 할 만한 분야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 저것 독서를 하면서 그중에 조금 더 흥미를 느끼게 하는 분야는 戰國문제라고 하겠습니다.

5. 최근 안동권씨 대중원은 통합과 정착기를 지나 변화와 발전을 향한 기로에 서었습니다. 이러한 때

중친회의 방향과 발전에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친회의 운영과 발전에 전혀 기여를 못한 사람이 무슨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굳이 말을 한다면 和合과 尊重,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6. 가족소개와 함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소개바랍니다.

-직계가족으로는 처와 아들 삼형제, 세 며느리, 손자녀 여섯이 있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지 않아 그쪽을 방심하다가 4년 전 갑자기 뇌출혈을 당해 좌반신 마비의 병고를 치렀습니다. 걷는 연습을 많이 하여야 하는데 게을러서 충분히 못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소식을 하고 평소 즐기던 술을 포도주 두세 잔 정도로 절제하고 있습니다.

7. 끝으로 전국의 안동권씨 족친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自重自愛하시고 다른 이를 尊重하시는 것이 敬이니 敬을 힘써 행하시기를 서로 勸勉하시기 바랍니다. 天行健 君子以自強不息이라 하였습니다. 두루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子曰, “배우기만 하고 생각함이 없으면 얻음이 적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어긋나기 쉬우니 위대롭구나.” -논어-
“天行健,君子以自強不息, 地勢坤,君子以厚德載物”
‘하늘의 운행은 군진하니 군자가 이로써 스스로 굳세어 힘입

었다.
땅의 형세가 곧이니 군자가 이로써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포용한다.’ -역경-

전 헌법재판관 권 성변호사 인터뷰 끝

<대담자 : 안동권씨 대중원 사무총장 권 오 운, (편집) 홍보부장 권 문 성>

權 誠족친은 민감한 사회적 사안을 다룰 때마다 개인의 권리를 중시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족친은 예로서 남녀관계는 국가의 문제보다 훨씬 복잡미묘하다는 견해를 소수의견으로 피력했던것이라 말한다. 족친은 공직을 수행할 때 항상 약자편에 서려고 노력했으며 강자에게는 준엄한 법적 책임을 내리는 등 중용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명법조인의 한사람으로 꼽아도 이견이 없는 자랑스러운 권문족친이다.

권 귀(權 圭1393~1421)선생은 권 근(權 近)의 아들로 본관 안동, 시호 제간(齊簡), 1404년(태종 4) 태종의 3녀 경안공주(慶安公主)와 결혼하여 길천군(吉川君)에 봉해지고, 1407년 호봉사 상호군(虎黃司上護軍) 겸 우군도총제(右軍都摠制)를 지냈다. 1413년 흠문기거(欽問起居)로 사신이 되어 명나라에 다녀오고, 1416년 길창군(吉昌君)에 개봉(改封)되었으며, 1418년 의용위절제사(義勇衛節制使)가 되었다.

| 저자와의 만남 |

‘영남 택리지’ 저자 權謹祐(권근호 복야공파 36세)

조선 후기의 실학자 청담(淸潭) 이충환(李重煥·1690~1756)의 지리서 ‘택리지(擇里志)’를 비롯한 옛 풍수지리 서적에 실린 내용이다. 이같은 풍수지리 원칙을 토대로 대구·경북지역 곳곳을 답사한 뒤 찬찬히 풀여낸 ‘영남 택리지’가 출간됐다. ‘풍수지리 답사기- 대구·경북편’이란 부제가 붙은 이 책에는 대구·경북지역 22곳이 등장한다. 음택풍수의 소재가 되는 산소와 양택풍수의 단골인 유명 인사의 생가터뿐만 아니라, 시골 마을에서 왕궁에 이르기까지 거론됐다. 대표적인 곳은 매력적이지만 부당 때문에 이때까지 어떤 풍수학자도 손대지 못했던 경주 반월성 등이 있다. 풍수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역사도 담겼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급 고인돌이 발견되기도 했다. 영천시 대창면 오길리에서 발견된 수백개의 별 그림이 그려진 고인돌이 그것이다. 이 고인돌은 안내표지도 없었으며, 어떠한 자료에도 기록돼 있지 않았다. 저자 권근호씨(53)는 논리적인 시각을 가진 독자들을 위해 자신의 해박한 풍수지리 지식으로 자랑스런 지역 선현들의 행적을 추적했다. 마치 고구마 줄기를 잡아당기듯 대구·경북지역의 내로라하는 선비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등장 인물만 해도 왕에서 노비까지 1천100명에 이른다. 참고자료는 300여종이나 되며, 사진 400여장과 풍수형국도 160여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 곁들여졌다. 집필에는 7년간ian 짧은 시간은 시간이 투자됐다. 이에 앞서 대구지역 8개 구·군과 경북지역 23개 시·군에서 발간된 ‘시지(市誌)’나

‘군지(郡誌)’, 마을지, 문집 등을 수집해 분석한 뒤 소재를 발굴하는 작업도 이뤄졌다. 자료 발굴을 맡은 공저자 김병덕씨(74)는 도서관을 뒤희는데 2년 6개월을 투자하기도 했다. 이같은 역작이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 권교수는 “기존 풍수지리서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 책을 저술하게 됐다”고 말했다. 풍수지리 답사기와 이론서가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이란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저자는 30대부터 풍수와 명리학 등 동양철학에 심취했다. 축협에 근무했던 저자는 2000년 축협이 농협으로 통합될 당시 퇴직한 뒤 그 다음해 풍수연구소를 열고, 본격적으로 풍수 공부에 매달렸다. 연구소의 문을 연 초창기에는 명당을 찾는 이들에게 자문도 해줬지만, 요즘은 이를 가급적 피한 채 저술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좋지 않은 땅도 좋다고 말해야 하는 현실이 싫어서다. 또 좋은 자리를 찾아줘도 인연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한다. 저자의 풍수지리 이론은 풍수지리를 공부하는 이들이라면 참고해야 할 내용이다. 정통 풍수지리 교과서들을 소개하고, 이들 교과서에 의거해 설명하며, 이론과 곁들여 역사적인 흐름을 함께 설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자는 물에 대한 풍수지리적 해석이 뛰어나 임문자들이 골격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풍수는 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이용하는 것”이란 저자의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저자는 “풍수지리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이 책이 참고서로 활

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먼저 수구(水口)를 보고, 다음은 야세(野勢)를 보고, 그 다음은 산형(山形)을 보고, 또 다음은 토색(土色)을 보고, 또 다음은 수리(水理)를 보고, 또 조산조수(朝山朝水)를 본다.”<이충환의 택리지(擇里志)>‘사람은 양명학 기운을 받고 태어났으니 햇빛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는 거처하지 말아야 한다. 모름지기 집터는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찬란하게 땅을 비추며, 비와 바람과 추위와 더위의 기후가 적절하게 절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곳은 인제가 많이 나고, 질병도 적다.’<서유구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산이 맑으면 사람이 귀하고(山淸人貴), 산이 밝으면 사람이 지혜롭다(山明人智)’<채성우의 명산론(明山論)>



△권근호는 누구인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축협중앙회에 근무했다. 어린 시절 대구시 동구 불로동에 있는 고분군에서 뛰놀면서 각인됐던 느낌이 발자민 듯 풍수지리에 빠져들었으며, 2001년 풍수지리연구소를 차렸다. 대구미래대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했으며, 현재 저술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균형 잡힌 시각이 부족한 기존의 풍수지리서에서 벗어나 이론과 역사적인 흐름 함께 설명하고 7년간 대구·경북 22곳 답사해 논리적이고 해박한 지식으로 지역 선현들의 행적을 추적하였다.

大木匠 權重禹(추밀공파 정간공계32세손)족친

傳承工藝의 여러분아 중에서 기와집을 짓는 장인을 大木이라고 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나무를 다루어 집짓는 일로 업을 삼은 사람을 목수 또는 목장(木匠)이라 통칭하는데, 그 가운데 문짝·반자·난간과 같은 사소한 목공을 맡아하는 소목(小木)과 구분하여 따로 대목이라 부른다.

목조건물을 짓는 데는 목수 외에 기와장이 [蓋匠]·흙벽장이 [泥匠]·단청장(丹靑匠, 假漆匠)·석수(石手) 등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하지만, 대목이 건물을 설계하고 공사의 감리까지 겸하는 까닭에 그의 소임이 막중하다

이와 같이 많은 목수가 동원되는 큰 건축공사에서는 도편수·부편수와 같은 대목은 재목을 마름질할 수 있도록 먹줄을 뒤희겨 주어야 하고, 수치에 엄격하고 밝아야 한다. 전래(傳來)의 대목들은 도제방식에 의하여 건축현장에서 양성되었는데, 고금의 뛰어난 건물에 대한 지식을 지녀야 함은 물론, 암기력이 탁월하고 제도술도 그 나름으로 익혀야 한다. 곧 먹줄 뒤희는 일은 우리나라 건축의 법식과 기법에 통달하여야만 한다.



△권중우 족친

고려말에서 조선전기사이의 궁궐이나 성곽을 짓는데 종사하던 기술자의 우두머리는 대목으로 불렸다.

1448년(세종30) 서울 송례문 수리공사의 목수 우두머리인 대목은 정5품 무관 관직에 있는 기술자였으며, 15, 16세기 불교사찰의 전각을 짓는 공사에는 대선사(大禪師)같은 법계를 지닌 승려 대목이 공사를 주관하였다.

17세기 이후 궁궐을 짓는 공사에는 대목은 사라지고 목수부수, 석수부수 외에 운돌부수, 창호부수 등 12개직종에 따라 각 부수가 책임자 역할을 했으며 이들을 총괄하는 기술자로 도편수라는 호칭이 나

타나기 시작한다. 불교사찰의 경우에는 18세기에 들어와서 역시 대목이 사라지고 도편수가 정착하게 된다.

현재 전통건축의 공사현장에서는 도편수라는 호칭이 관습적으로는 쓰이지만 제도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목수 분야를 집 전체의 뼈대를 제작하는 대목장(大木匠)과 실내의 가구 등을 제작하는 소목장(小木匠)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에서 대목장은 건물 전체를 총괄하는 기술자 우두머리의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편수는 역사적인 용어로만 남아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韓屋建築은 최근 점점 고갈되어 가는 韓流 관광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뿐만아니라 웰빙주책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立生活하는 中國人の 建築이나, 다다미식 構造의 日本建築에 비해서 韓屋建築物은 기초(운돌난방구조)부터 지붕구조(다중다포방식)에 이르기 까지 훨씬 복잡하며 그만큼 大木手의 力量 또한 더욱 높이 要求된다. 선생의 말에 의하면 傳統方式的의 哲學과 技能이 유지 계승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나 高齡이 되면서 사람구하기나 일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陸松이 귀해서, 충분한 乾燥과정을 거치지 않은 材木이나 入松(더글러스 퍼)등을 많이 사용하여 劣化한 傳統方式의 哲學과 技能이 유지 계승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나 高齡이 되면서 사람구하기나 일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선생은 충분한 시간과 정성이 들 어가지 않은 한옥건축물은 반드시 瑕疵가 난다는 경험으로 매사에 정직하고 철저하게 공사에 임하며 국내에도 몇 안되는 대목수의 한사람으로 권문의 자부심을 높이고 있다.

(홍보부)

행복(幸福)가꾸기

南溪 權 赫重(추밀공파36세손)



돈(財物), 명예(名譽), 지식(子息), 벗(朋友) 등 이 모든 것을 가질수만 있다면 이를 행복이라고 할까? 행복이란 결국 마음에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상태, 즉 마음속에 불안(不安), 초조(焦燥), 번뇌(煩惱), 갈등(葛藤) 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본다.

대성인(佛敎)께서 말씀하신 열가지 행복의 조건은

첫째: 어리석은 사람을 멀리하고 어진이를 가까이 하는 것.

둘째: 존경할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

셋째: 분수에 맞게 살면서 공덕을 쌓고, 바른 서원을 갖는 것.

넷째: 지식, 기술, 훈련을 쌓고 그 위에 번제(辨才)가 뛰어난 것.

다섯째: 부모를 공경하고 처자를 사랑하며 잘 보호하는 것.

여섯째: 보시(布施)를 할 줄 알고,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하며, 남들

로부터 비난을 받을 짓을 않는 것.

일곱째: 악을 멀리하고 술을 절제하며 덕행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여덟째: 겸손하고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아홉째: 인내하고 온순하며, 수행자를 만나고 그들과 진리를 논하는 것.

열 번째: 다른사람들의 깨끗한 행동과 마음을 보고 알고, 참된 것을 보고 깨달을 줄 알며,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 등이라고 하였다.

효도(孝道)는 백행(百行)의 근본이라고 했다.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는 사람이 형제간에도 우애를 잘하고, 훌륭한 자식을 낳아 키움으로써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을 이루게 되며, 이런사람이 출세도 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오르고, 부(富)를 이룬다고 본다.

공자(孔子)님께서도 효도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첫째: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 드리는 것이요,

둘째: 부모님의 병간호에 온갖 정성을 바치는 것이며,

셋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슬픔을 다 해야 하는 것이요,

넷째: 부모님 제사를 엄숙한 마음으로 다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존경심이 없는 물질적인 봉양(奉養)은 건마(犬馬)를 소중히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라고 하셨다.

옛말에 형벌의 종류가 3천여 가지이나 그중에도 불효보다 더 무거운 죄는 없다고 했고, 효도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그 정성이 신명(神明)에 통하고 사해(四海)에 빛나서 널리 온 천하에 미치는 것이다.

공자께서는 또, “효도란 하늘이 낸 진리(眞理)로서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運行)과 같은 필연적(必然的)인 것이고, 효로써 임금을 섬기면 충(忠)이 되는 것이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윗사람을 섬기면 순(順)이 되는 것인데, 충과 순을 잃지 않고 윗사람을 섬긴 연후에 그 벼슬(官)과 녹(祿)을 보전할 수 있다.”라고 하셨다.

안동권씨 대중원 대표메일 변경안내

2016년 7월 1일부로 안동권씨 대중원 대표메일이 다음카카오톡로 변경되었습니다.

▶E-mail: andongkwonmun@daum.net

※ 주의사항: 현행 네이버, 네이트를 3개월 유효 병행사용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안동권씨 대중원(권문)단체메일 단일전환

앞으로

대한상운택시로!!

예약하시면 **집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전화 : **1800-1199**

www.daehantaxi.co.kr

한글도매인 : 대한상운택시

대형택시 3000cc 그랜저, K7 택시를 **일반요금**으로 모십니다.

3~4명이 이용하시면 버스요금보다 저렴합니다.



LPG 탱크를 제거하여 보다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대한상운의 명예를 걸고 **엄선된 친절한 기사**가 여러분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대한상운은 훈장4회, 대통령 표창5회 등을 수상한 **서울시 최우수 택시회사**입니다.

예약 전화 **1800-1199**

전화만 주시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대한상운(주)**